



“본회 김수근회장, 대통령 초청 간담회 참여”

- 사슴고기 대중화 필요성 역설 -

지난 1월 6~7일,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국회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 농민단체장들을 초청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 대표들과 함께 지난 1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오찬을 갖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그리고 그에 따른 농업·농촌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전날, FTA비준동의안을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농민 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과 만나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필역 했지만,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본회 김 회장이 속한 ‘농단협’은 FTA비준안에 대해 부분 찬성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간담회가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 초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따르는 농업·농촌지원대책을 설명했다. 회담에 참여한 소속 농민 단체들에게 FTA협약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통령은 “비준 지연과 반대는 국가 경

제를 어렵게 하고, 해외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농축산분야의 시급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회 김수근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 4월부터 수입되는 외산 절편녹용을 설명하며 “절편녹용은 원산지 및 진위여부 분별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록의 뿔과 같은 효용가치가 없는 것들이 섞여 판매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양록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확고한 조치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회장은 “요즘 주요 축종들의 잇따른 질병문제로 인해 축산물의 소비위축은 물론, 국내축산업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고 전제하고 “지금 사슴고기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적기”라며 녹육의 대체 축산물로서의 가능성을 역설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양록농가**